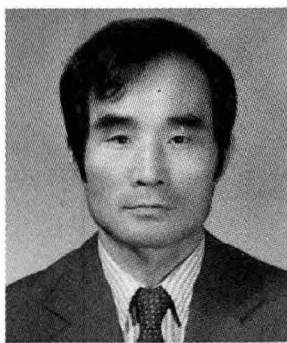


장마에 대비하자



김 우 탁
〈월간「기상정보」편집인〉

● 보슬비에서 집중호우까지

이제 머지 않아 장마가 다가온다. 흔히 제5의 계절이라고도 부르는 장마철에는 보슬비에서 집중호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이름의 비가 적당히 안 배되고 있어 우리나라 장마철은 비의 전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슬비라는 것은 기상학상 안개비라는 것으로 안개의 물방울이 다소 굵은 형태로서 비가 오는 시늉만 났지 몇시간이 내려도 강수량은 0.1mm도 못되는 정도의 비다.

이에 비해 가랑비는 빗줄기가 가늘다 뿐이지 내리기만 하면 한시간에 1~3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일 수가 있다.

이슬비라는 것은 가랑비와 구별

할 수가 없고 이 양자는 모두 소우(小雨)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냥 비라고 할 때는 대개 시간당 5mm 안팎의 강우량이 있는 강우 형태를 뜻할 때가 많고, 「물줄기가 굵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시간당 강우량이 10mm 가량 될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중우(中雨)라는 말은 없지만 구태여 따진다면 이 정도의 강우가 여기 속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대우(大雨)에 속하는 비가 있겠는데, 어느 기간내에 강우량이 많은 것을 대우라 하고 특히 짧은 시간에 높은 강도로 내리는 비를 호우(豪雨)라 부르고 있다. 좁은 지역에 비교적 단시간에 내리는 대우를 집중호우라고 해서 호우와 구별하기도 한다. 이것을 강우량으로 따지면 시간당 20mm 안팎이 되고 하루동안에는 1백mm 가량 되는 비에 해당된다.

● 우산 없이는 못 다녀

비가 오면 우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가 대상지역을 전 지구로 넓혀 살펴본다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외국 영화를 볼 때면 가

끔 느끼는 일이지만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받고 다니는 장면이 우리나라 만큼 많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은 축에 속해 서울을 예로 들면 강수량이 1년에 평균 1천2백60mm나 되는데, 유럽의 경우를 보면 런던이 6백11mm, 파리가 5백85mm, 비인이 6백60mm로 모두가 서울의 절반가량 밖에 안된다.

강수량을 강우일수로 나누어 보면 서울지방은 한번 비가 오는데 평균 강우량이 11mm가 되는데 비해 런던은 4mm, 파리는 3mm, 비인이 4mm로 역시 서울이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오면 우산없이는 못다닐 정도며 때로는 우산을 받고도 옷이 젖을 정도로 강한 비가 오기도 하지만 유럽의 비는 대개 그 강도가 약해서 고작해야 보슬비나 가랑비 정도니까 우산 없이도 다닐 수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이상기상 때문인지 우산을 받고도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큰비가 일 년에도 몇번씩 내리고 있다. 우산을 받고도 비를 피할 수 없는 강우량은 대개 1시간당 14mm 이내일

때다. 그 이상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받고도 옷이 젖는게 보통이다.

● 소나기 30분이면 침수

대체로 침수되거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강수량은 1시간당 20mm 이상 내릴 때나 하루에 80mm 이상 내릴 때이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얘기고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이나 저지대에서는 하루에 50~60mm, 시간당 10mm의 비만 내려도 벌써 침수소동이 일어난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축대나 벼랑이 무너지는 데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벼랑의 경사가 30도 이상이 되고 암석이 아닌 토사로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위험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런 곳에는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산을 깎았다던가 언덕을 헐어 만든 각종 조성지(造成地-택지 등)에서 산사태가 많이 유발되고

있다. 늘 잘 나오던 우물물이 마를 때도 산사태를 예상할 수 있는 한 신호가 된다고 한다.

축대와 벼랑이 무너지는 경우는 하루 강수량이 많을 때 보다 시간당 강수량이 20mm 이상 될 때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하천형편이나 배수시설이 충분치 못해 물이 불기 시작하면 1m 오르는데 1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히 제방이 무너졌거나 하천이 넘쳐서 물이 불어날 때는 1m 높아지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침수속도가 빠를 때는 단순히 강수량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해야 한다.

● 연중행사가 된 수해

우리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2백~1천5백mm로 잡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2천mm를 훨씬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그런데 이 강수량의 65~75% 가량이 6, 7, 8월 석달 동안의 여름에 쏟아 지기 때문에 해마다 어디선가 수해가 일어나곤 한다. 숙명적이라고나 할까.

장마기에 들어 김새가 물이 불을 것 같으면 피난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상책이다. 우선 집안의 중요 물품 이를테면 예금통장·고서화·그밖의 귀중품 등은 다락위에나 2층으로 옮겨놓는다. 그런 다음엔 회중전등과 현금, 음료수 등을 유사시 수월하게 몸에 지닐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

그런데 물이 불어난다 해서 아무 때나 물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물의 깊이는 흐르는 물인 경우 남자가 70cm이고 여자는 50cm, 10살 정도의 어린이는 20cm 이하일 때다. 집밖의 물이 벌써 이 이상 고이기 시작했을 때는 피난을 떠나기 보다는 상황을 보아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다.

피난을 할 때는 가볍고 따스한 옷차림을 하되 반드시 신을 신어야 하는데 이 경우 농구화가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는 편이 안전하다.

그밖에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금과 음료는 각자가 지니도록 한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5월 중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라 이를 매우기 위해서도 올여름엔 비가 많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

